

마켓픽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 Blue wave 가능성 반영 필요

기업 대한 의회 조사 확대와 정부폐쇄 확률 상승, 트럼프 관련주 동력 잃을 가능성

2026년 11월 3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전체인 435석, 연방 상원 의원의 1/3 가량인 35석 (정기선거 33석, 특별선거 2석), 36개 주와 3개 미국령의 주지사를 새로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에 대한 첫 중간평가로,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지배력이 변화할지 관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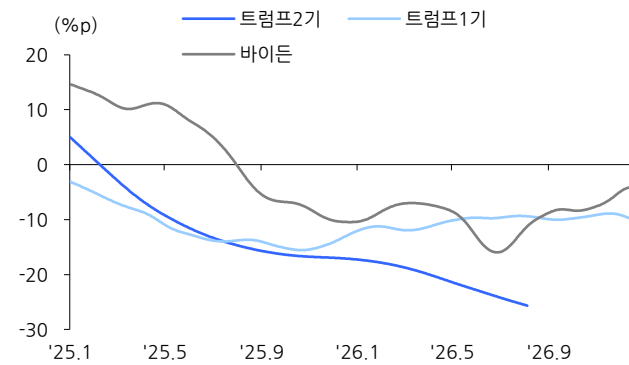
미국내 생활비 부담 증가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캐나다와의 통상 갈등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그림1). 물가와 관련된 지지율의 하락이 가장 크다(그림2). 8월 28~31일 진행된 Reuters/Ipso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적극 투표 의향은 40%로 공화당의 27%를 웃돌고 있다. 무당층에서도 민주당 선호가 공화당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강점이었던 경제 문제에서도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다. 생활비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정당으로 민주당을 꼽은 유권자는 35%로 공화당의 29%를 앞섰다. 미국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라는 점에서 생활비 부담이 공화당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그림3).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다수당이 되는 Blue wave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Polymarket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하는 Democrats Sweep 확률은 51%까지 상승했다(그림4). 시장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는 가운데, 상원 장악 확률까지 절반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Blue wave가 현실화되면 어떤 것이 달라질 것인가?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층 증세, 관세 인하와 헬스케어 지원 확대, 빅테크와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통과된다는 점에서 거부권 무효화는 쉽지 않다(그림5). 반면 기업에 대한 의회 조사 확대와 인준권을 통한 트럼프 정책 실행 지연,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정부폐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 없는 의회 조사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빅테크와 대형은행에 대한 의회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했던 기업일수록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상원은 트럼프의 주요 인사에 대한 인준권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인준 거부를 통해 트럼프 정책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예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부채한도나 재정정책에 대한 트럼프와 의회의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정부폐쇄가 길어질 수 있다. 의회와의 충돌은 트럼프 정책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Blue wave 발생 시 트럼프 정부 수혜주로 꼽히는 암호화폐, 대형은행, 정부계약 관련 기업, 화석연료 관련 기업 주가는 일시적으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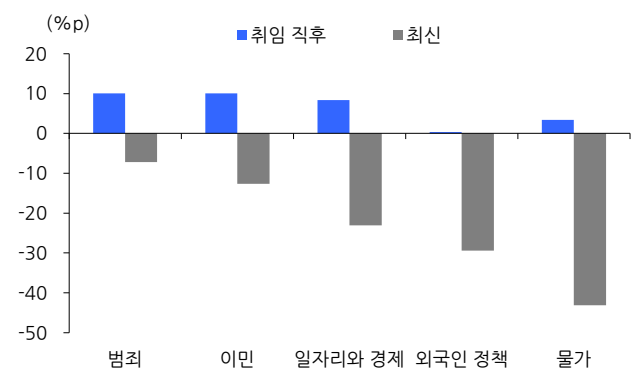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그림 1〉 집권후 2년간 순지지율, 트럼프 2기 정부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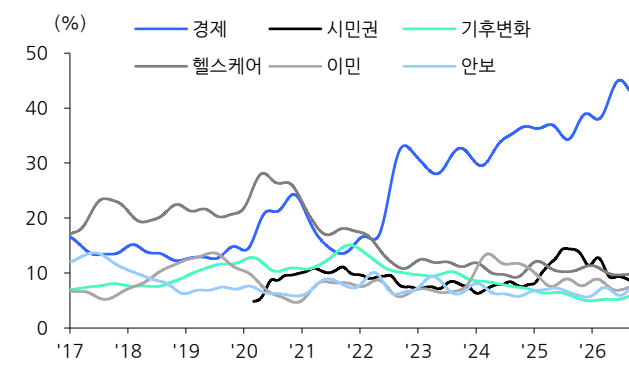
주: 순지지율(Net approval rating(%))이란 지지율(Approve)과 비지지율(Disapprove) 차
자료: The Economist, 현대차증권

〈그림 2〉 물가에 대한 순지지율 하락 눈에 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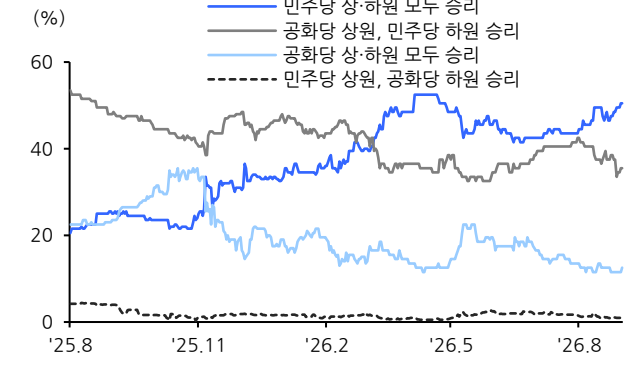
주: 특정 이슈별 트럼프 정부에 대한 순지지율 변화
자료: The Economist, 현대차증권

〈그림 3〉 미국 유권자들 경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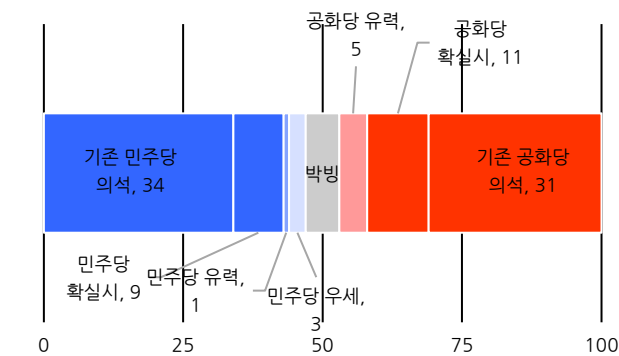
주: 미국 유권자들이 각 시점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응답 비율
자료: The Economist, 현대차증권

〈그림 4〉 민주당 상·하원 석권에 베풀하는 확률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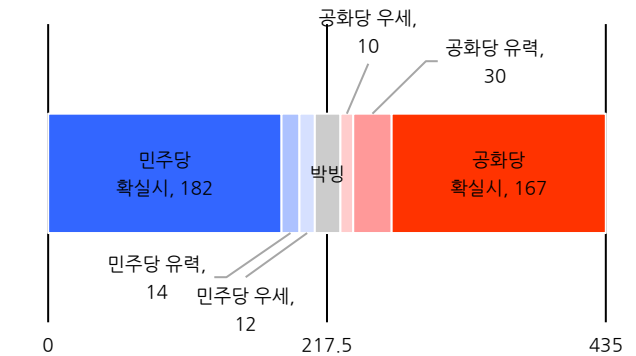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현대차증권

〈그림 5〉 민주당 상원에서 박빙 승부 예상



주: 8월 31일 기준 추정치
자료: 270TOWIN, 현대차증권

〈그림 6〉 민주당 하원에서도 근소한 우위 전망



주: 8월 31일 기준 추정치
자료: 270TOWIN,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재승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